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차별이 없는 곳

(약 2:1-4)

The Indistinctive Place

(James 2:1-4)

야고보 사도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기에 사람들 간의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종,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등의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차별이 사라져 버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관해 의문을 일으킵니다(2:2-4).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별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Because the time of James, the Apostle was a complete class society, th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as very heavy. There were a lot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Jews and the Gentiles, the nobility and servants, the Greeks and barbarians, and the rich and the poor. But the place where the discrimination disappeared was only in church. Not to speak to the rich and the poor, men and women, and all ranks and classes, the church was the unique place where all people in the church could be called brothers and sisters in the world.

James, the Apostle burned his righteous indignation about the favoritism in the church through the text (James 2:2-4). Nevertheless, this situation did not happen at that time. Recently, such a thing has often risen in the church. However, James' message in the text is that the favoritism like this can never happen in the church.

1.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이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그 이유는 사람의 가치가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영광이 각 사람의 얼굴과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All people are created equally in the image of God

James says that people cannot be judged by the appearance (James v. 1). The reason is that a man's worth is not in the possession but in their existence itself. All men have the image of God. The eternal value and the eternal glory exist in the face and life of them. Therefore, Christians who know the worth of all men who have God's image and shape never judge people by the appearance and discriminate by favoritism.

2.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께서 죽어주시만큼 사랑하신 존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자연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만물을, 특히 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원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구원의 문을 외면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여 대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All people are loved by Jesus so much that he died and rose again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3).

The world in Greek refers to 'cosmos'. Cosmos means all creation including the world of nature, especially, all mankind that live in the world of nature. Of course, if we see it as a conclusion, all people in the world are not saved. Though God clearly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and opens a door wide, there are clearly some people who turn away from the door of salvation and drop to an eternal death.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God loves all people in the world. Consequently, Christians who know the truth and believe in God never judge people by the appearance or show favoritism.

My beloved Christians,

James says that the word from the Bible is the highest law that has to be observed by us. Moreover, he says that the highest law is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Church is the place where a celebrity or unknown person, the rich or the poor, and the highest person or the low person can equally be able to receive love. James warns that the fact that people are discriminated by the appearance is judged by evil thou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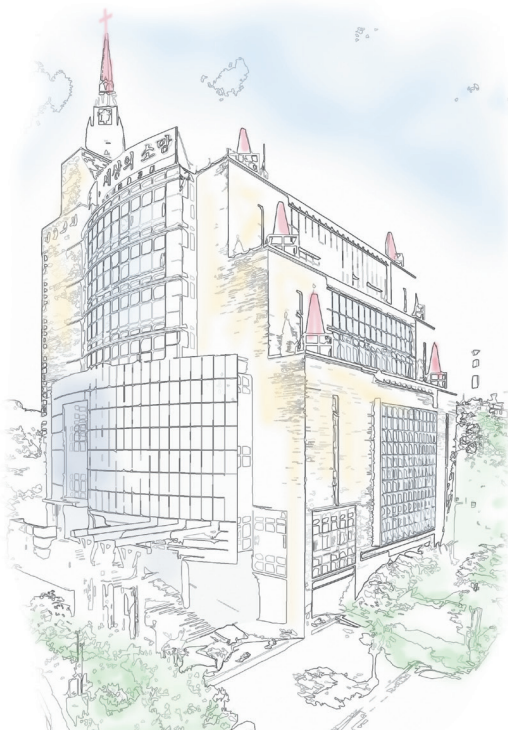
By looking each other and realizing that in the church on the earth, the rich should not be arrogant, but serve their church in modesty with the materials given by God, and the poor should not be depressed because of poverty but share fellowship with joy, and that Jesus bleed to death on the cross and Jesus is the existence of love, I sincerely pray that our church will respect and love one another with the joy of pie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법이 모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다 똑 같이 사랑받는 곳입니다.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부한 자도 교만하지 않고 주신 물질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 가난한 자도 가난 때문에 움추리지 않고 기쁨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임을 알아 경건의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 흥해 작전

특별행사 마감: 6월 19일 오후 2시

2016년 흥해작전이 진행 중이다. 주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이며 기간은 6월 6일(월)부터 6월 25일(토)까지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영아부에서 고등부 학생들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또한 2016 흥해작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건너면서 체험한 기적과 은혜를 간증하는 특별 행사인 사행시 오행시 영문오행시 그림그리기 산문(글짓기)등의 심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특별행사 마감 : 6월19일 오후 2시
2. 특별행사 심사 : 6월19일 오후 3:30~4:30 (202호실)
3. 심사위원 : 유문건 목사(지도목사) 양춘경 장로(참모장) 이강진 장로(교육위원장)
 - 그림 그리기 : 전광영 집사 김정미 권사 각 교육부서 부장
 - 사(오)행시 산문 : 윤영남 권사 신동기 권사 각 교육부서 부장
 - 영어오행시 : 김다니엘 목사 영어예배부 부장



사진 : 윤명구 집사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의 선교

(마 29:18-20)

크리스찬의 선교는 왜 그렇게 긴급한가, 그리고 누가 선교할 수 있는가에 이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교는 그 대상에 따라 전략도 달라진다. 공산권, 모슬렘권, 유교권, 불교권, 각 문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따라 선교 전략은 달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봉사선교(Service mission), 가령 선교지에 병원을 설립한다던가 학교나 고아원 등을 세움으로써 간접 선교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신앙선교(Faith mission)를 해야 한다. 이 교회 개척운동은 선교국과 피선교국 사이에 협력선교를 하는 것이다. 19세기 식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라는 식의 우열관계가 아닌 자국의 목사를 훈련시켜 그 목사로 하여금 자국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목사나 신학생들이 우리나라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며 한국 교회의 열정과 부지런함, 목사들의 근면과 희생적

헌신을 배워서 그 열정으로 자기 국민을 전도할 때 그 성과는 배가 될 것이다.

선교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능력은 사실상 대단히 큰 것이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명실공히 세계 복음화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하는 사람은 닫힌 문 뒤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문이 열릴 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수 십년 간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지켜온 순수한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닫혔던 문이 조금 열리자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무분별한 돈이 들어가 중국의 교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교회들 사이에 분쟁과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철저하고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협력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을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람이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해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자들도 있으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기뻐한다”고 하였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인간은 모



제29회 어린이 대회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강남협의회(회장 : 우상태 집사)가 주관하는 제29회 어린이대회가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6월 18일(토)에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학년별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성경, 글쓰기, 그리기, 독창, 중창, 동화구연, 찬양울풍 등 행사가 있었다.

교회주변 불법주차 금지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교회주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에 이열주차, 보도주차, 횡단 보도 및 교차로 주차를 금지하기 바란다.



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내 교회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다른 교회니가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바울의 저 위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몸 된 지체라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 복음은 엄청나게 확장되었는데 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일꾼 양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야 한다. 선교를 할 때는 선교지역의 가치관,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말 선교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과 성령께 대한 민감한 응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대의 전략이며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으며 선교의 자료는 우리들의 지식이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교의 자료가 된다. 선교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고 선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의 대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것이다.

(다음 주 계속)

호국의 달 특별기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



차영도 집사
(비전2020 기획·
교육부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6·25동란 발발 66주년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도 펴지 못한 채 조국의 부름에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조국의 위란에서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 자유, 신앙생활 등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조국의 산하에 뿌린 귀한 피 덕택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생존하는 한 이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려야 합니다.

오늘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조국수호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조국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론을 모으고 지도자들은 자기희생과 솔선수범할 것을 묵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

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사회, 교회 등 각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패의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우선 정직하고 청렴함을 몸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어떻게 성도들이 많아 가겠습니까. 이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크리스찬의 존재감은 점점 왜소화 되고 중국에는 사회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라면 내가 먼저 법과 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一口二言으로 성도들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령 일치의 삶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정직과 청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은인을 배신하고 인격적 살인을 자행하는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편법과 불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법과 원칙을 먼저 준수하고 내가 한 말과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내 가정과 교회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 국가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의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국론을 모을 수 있고, 누구나 조국의 부름에 가까이 응할 것입니다.

이제 6월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 존재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합시다. 오늘도 전후방에서 조국수호를 위해 제복을 입고 근무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따스한 눈길을 보냅시다!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행 16장 9절)



조원영 목사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지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새로운 사역지를 향한 중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우리)이 함께 결단하며, 힘을 써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이 순종이 유럽 문

화와 세계문명의 판도를 판이하게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울 한 사람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일을 위해서 30명의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팀이 구성되었고, 매주 이 사역을 위해서 훈련과 사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교보고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이슬람인들이 해가 있는 동안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7월 6일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들 피투리)(이슬람식 새해)입니다. 이들은 라마단 기간동안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회교사원에서 잠을 자고 학생들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기에 거의 모든 사무가 정지되는 느낌입니다. 일년에 두 달의 긴 기간의 모든 일들이 멈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라의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세력이 더 과격해지곤 합니다.

서광종 선교사는 압디엘 교회음악 대학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압디엘 교회음악 대학원은 최초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세워진 회교음악교육만을 위한 대학원입니다.

· 중부자바 솔로시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압디엘 교회음악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솔로시에 있는 GUP 교회에서 설교사역과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음악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에 교회의 성도들은 감탄을 하고 서로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 스마랑시의 스타디온교회 - 계속 정기적으로 스타디온 교회의 중 고등부, 청년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가대를 지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서광종선교사의 사역이 많아 다 충족하여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광종 선교사는 메단 국제 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7월18일부터 25일까지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에는 몇 분의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음악 대학원에 함께 합류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회교음악

학 도서관과 자료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 도서관과 자료실은 교회 음악 대학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자료들은 이미 확보되었지만 시설이 없어 개설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성경공부 시간 : 선교센터에서는 매 주 금요일 오후에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7-9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성경공부에 참여하였었는데 하루는 16명의 어린이가 성경공부에 참여하였습니다. 14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는데 2명은 극렬한 이슬람 부모가 반대해서 옆 방에서 놀며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 듣고 보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간식시간에는 함께 합류하여서 식기도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부모들이 반대해서 결국 이 어린이들은 선교센터의 밖을 떠돌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 * 기도해 주십시오**
1.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광종 이성일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종과 겸손함이 있기를 위해서
 3. 압디엘 교회 음악 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4. 교회음악 도서관 및 강의실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
 5. 스타디온 교회와 히둡바루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6.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7. 오마 바빠 선교센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

하여 주시고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슬람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8. 저희 가족의 영적인 충만함과 강건함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특히 딸 파란하늘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서광종 이성일 그리고 파란하늘 올림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예루살렘찬양대(대장:신현일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심상회 권사의 지휘로 "You are my all in all 주는 나의 모든 것 (Dennis Jernigan곡)", "O Sifuni Mungu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Roger Emerson편곡)", "Eternal Praise 영원한 찬양"의 찬양곡을 피아니스트 이승민 집사와 오르가니스트 최수환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바이올린에 윤여진 성도, 첼로에 박성수 성도, 타악기를 김종훈 성도가 담당한다.

동정

- 박사학위 취득: 12교구 임경민 성도(임상한 장로 서희숙 권사 장녀) 미국 UCLA 교육사회학 박사학위 취득(Ph. D, 대학교육분야)
- 주일식당봉사: 리브가 전도회(6.19) 한나 전도회(6.26)
- 금주의 식사 제공: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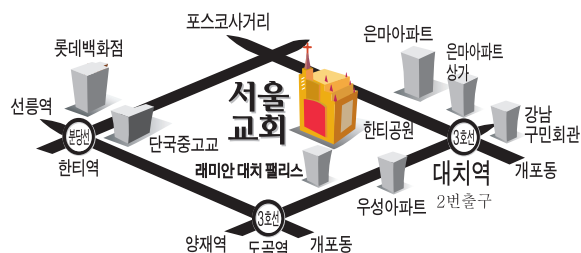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마지막까지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6.25 전쟁의 상처를 잊지 말고 철저히 건강한 국가관과 함께 더 밝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3. 방글라데시 비전트립(8월 8일-15일)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I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